

어린왕자에 나타난 어린이 자질

정 연 풍

(佛語教育科)

1.

Le Petit Prince에서 화자는 자신의 꿈속 화신이라 생각할 수 있는 어린 왕자와의 우연한 만남과 대담을 우화와 같은 짧은 이야기들로 제시한다. 이 작품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Saint-Exupéry*의 이전 작품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험난한 환경 속에서 얻은 조종사들의 생생한 체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었던 바와는 전혀 달리 동심의 환상의 세계를 그에 알맞는 문체로 윤색하면서도 촌철의 교훈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전쟁에 자원하여 참가하기 바로 전에 출간된 이 마지막 작품에서⁽¹⁾ St-Ex.*는 태연히 어린이의 꿈의 세계에 귀의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이 생각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었던 독자는 누구나 그의 작품의 문학적 충격이 단순히 주인공이 겪는 극한의 모험과 삶에 대한 명상에 못지않게 이와 대조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와 더불어 과거에 대한 추억 그리고 불현듯 나타나곤 하는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행동들의 환기에서 흘러나움을 느꼈을 것이다. 비록 Le Petit Prince에서와 같이 전 작품들이 동심의 세계와 밀착하여 있지는 않을지라도 St-Ex.의 다른 작품에서도 어린시절 회상은 그의 작품세계를 한층 풍요롭게 함을 볼 수 있다. 어린이 세계에 대한 향수는 그에겐 마지막 귀의할 어떤 이상향의 그리움처럼 그의 속 깊숙히 남아 있었던 것 같다.

PP가 어린이 꿈의 새로운 가치회복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어린이 세계의 환기가 어떻게 방법으로, 어떠한 의미를 띠고 나타나며, 어린이의 자질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표는 PP에 나타난 어린이 자질의 윤색을 좀더 밀도있게 살펴보고 이를 St-Ex.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자질과 접목시킴으로서 이 작품 뿐만 아니라 St-Ex. 문학전체에서 어린이 자질이 표출하는 문학성의 비중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다.

(1) *Le Petit Prince*는 1943년 4월에 발간되고, Saint-Exupéry는 1943년 5월에 있던 자기 경찰비행 부대에 합류하여 1944년 7월 전사하였다.

*Saint-Exupéry는 St-Ex., 작품 *Le Petit Prince*는 PP, 작중인물 어린왕자는 pp로 씀.

2.

St-Ex.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특별히 나이를 제시하지 않고 유년기를 회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독립된 의식을 갖게 되는 연령인 오륙세의 추억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PP에서 St-Ex. 자신임을 암시하는 화자는 *Lorsque j'avais six ans, j'ai vu...*라고 작품을 시작하며 자신의 유년기 세계로 들어간다. *Pilote de Guerre*에서도 화자겸 작중인물인 St-Ex.는 자기 의식의 갈등이 어떤 본질적인 존재와 결부되어 일어나는가를 자문하다가 그의 기억에서 가장 오랜 오륙 세 때에 가졌던 경험을 연상한다.

Lorsque j'étais petit garçon... je remonte loin dans mon enfance. L'enfance, ce grand territoire d'où chacun est sorti! D'où suis-je? Je suis de mon enfance. Je suis de mon enfance comme d'un pays.... Donc, quand j'étais petit garçon, j'ai vécu un soir une drôle d'expérience.

J'avais cinq ou six ans. Il était huit heures. Huit heures, l'heure où les enfants doivent dormir....

Puis ils (les oncles de St-Ex.) revenaient comme une marée qui eut, de nouveau, roule vers moi ses indéchiffrables trésors. «C'est insensé, disait l'un à l'autre, c'est positivement insensé...» Je ramassais la phrase comme un objet extraordinaire. Et je répétais lentement, pour essayer le pouvoir de ces mots sur ma conscience de cinq ans: «C'est insensé, c'est positivement insensé...»

Donc, la marée éloignait les oncles. La marée les ramenait. Ce phénomène, qui m'ouvrait sur la vie des perspectives encore mal éclairées, se reproduisait avec une régularité stellaire, comme un phénomène de gravitation.⁽²⁾

위 인용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이 생각하는 St-Ex.의 PP 집필구상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왜냐하면 PP 바로 전에 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른인 자신의 존재를 유년기와 밀착시켜 생각하면서 유년기로의 회귀가 자기에게 마치 행성의 인력 현상과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삶에 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 준다고 실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그의 속 삶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년기(*grand territoire*)에 *petit prince*를 등장시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여 본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참된 삶을 새로이 맛보듯이 절실했을 것이다. 더우기 그는 유년기가 지금은 모호하며 멀리 떨어진 것과 같지만 자신의 감정, 언어, 동작을 지배하며 마치 현미경 밑에 있는 작은 조각이 과학자에게 보여주듯이 유년기는 그에게 처녀림 만큼이나 넓고 큰 모험을 할 수 있는 영역 (*territoire autrement vaste que la forêt vierge*)⁽³⁾을 제공할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이는 곧 그가 유년기를 새롭게 형상화하여 그 참된 가치를 새로이 부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Pilote de guerre*, Pléiade, éd. Gallimard, pp.311-3.

(3) *Ibid.*, p. 311.

또한 그가 여기서 사용한 *enfant, six ans, forêt vierge, aventure* 같은 단어들은 PP 첫쪽에 나오며 *C'est insensé, c'est positivement insensé* 같은 말은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대화한 후 되풀이하는 *Les grandes personnes sont bien étranges,*⁽⁴⁾ *décidément bien bizarres,*⁽⁵⁾ *décidément très très bizarres,*⁽⁶⁾ *décidément tout à fait extraordinaires*⁽⁷⁾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데서도 *Pilote de guerre*를 쓸 때 St-Ex.에게 PP의 구상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Terre des Hommes*에서도 PP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그의 한 폴란드 노동자 가족의 어린이를 보고 *petit prince*와 같다고 느낀 데 나타나고 있다.

Je me penche sur ce front lisse, sur cette douce moue des lèvres, et je me dit: voici un visage de musicien, voici Mozart enfant, voici une belle promesse de la vie. Les petits princes des légendes n'étaient point différents de lui: protégé, entouré, cultivé, que ne saurait-il devenir!⁽⁸⁾

3.

PP에서 화자는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아쉬움은 pp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로 흥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grandes personnes*는 모두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명백한 것, 즉 야수를 삼킨 Boa 뱀의 모습을 모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운데만 블록하고 야쪽으로 가늘게 늘어진 모습인 그의 그림은 누구나 증절모로 볼 법하다. 그리하여 그는 블록한 곳에 코끼리를 그리어 넣고 *grandes personnes*의 이해를 구하나 그들은 그의 그림 그리기를 집어치우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코끼리는 속에 들어 보이지도 않는 그의 증절모 같은 그림을 보고는 단번에 Boa 뱀 속에 있는 코끼리를 알아차린 사람은 pp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된 것은 어른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어린이는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PP의 화자는 어린이의 어른에 대한 고충을 다음과 같이 실토한다.

Les grandes personnes ne comprennent jamais rien toutes seules, et c'est fatigant, pour les enfants, de toujours et toujours leur donner des explications.⁽⁹⁾

Les enfants doivent être très indulgents envers les grandes personnes.⁽¹⁰⁾

(4)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43.

(5) *Ibid.*, p.446.

(6) *Ibid.*, p.447.

(7) *Ibid.*, p.451.

(8) *Pilote de guerre*, Pléiade, éd. Gallimard, p.260.

(9)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12.

(10) *Ibid.*, p.422.

그리고 pp는 어른은 모든 것을 혼동할 뿐이며 늘 신중함척 하지만 실은 모자거리나 다름 없는 걸치레만 가춘 허수아비나 다름없다고 야유한다.

—Tu parles comme les grandes personnes!

Ça me fit un peu honte. Mais, impitoyable, il (petit prince) ajouta:

—Tu confonds tout... tu mélanges tout!...

Et toute la journée il (un Monsieur) répète comme toi: «Je suis un homme sérieux! Je suis un homme sérieux!» et ça le fait gonfler d'orgueil. Mais ce n'est pas un homme, c'est un champignon!⁽¹¹⁾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이와같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물을 어린 자기처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그 겉 모양만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Les grandes personnes aiment les chiffres. Quand vous leur parlez d'un nouvel ami, elles ne vous questionnent jamais sur l'essentiel.⁽¹²⁾

Il est très simple: on ne voit bien qu'avec le coeur.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¹³⁾

—Les enfants seuls savent ce qu'ils cherchent, ajouta le petit prince.⁽¹⁴⁾

여기서 강조된 것은 Les grandes personnes ne comprennent jamais toutes seules이 시사하듯이 어른의 어떤 사물에 대한 자연발생적, 직관적, 주관적 이해의 상실과 Les enfants seuls savent ce qu'ils cherchent가 뜻하듯이 어린이로 상징되는 영적존재 능력이다. St-Ex.는 첫 작품을 쓰기 전부터 직관에 반하는 추론에 따른 헛된 논쟁에 회의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회의는 특히 인간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의 감정을 잃고 이기주의에 굳어진 독선적 사상과 정치가들의 발호 속에 참담한 전쟁으로 휩쓸리던 시절에 집필한 그의 말기 작품과 유작 Citadelle에 더욱 강력히 나타난다.

Il faut apprendre non à raisonner, mais à ne plus raisonner. On n'a pas besoin de passer par une succession de mots pour comprendre quelque chose...⁽¹⁵⁾

...je me crois le maître des choses quand les émotions me répondent.⁽¹⁶⁾

Le pur logicien, si nul soleil ne le tire à soi, se noie dans la confusion des problèmes.⁽¹⁷⁾

Un être n'est pas de l'empire du langage, mais de celui des actes. Notre Humanisme a négligé les actes.⁽¹⁸⁾

(11) Ibid., pp. 430-1.

(12) Ibid., p. 421.

(13) Ibid., p. 474.

(14) Ibid., p. 477.

(15) *Lettres à sa mère*, éd. Gallimard, 1955, p. 140.

(16) *Courrier sud*, Pléiade, éd. Gallimard, p. 17.

(17) *Pilote de guerre*, Pléiade, éd. Gallimard, p. 366.

(18) Ibid., 377.

Le langage est source de malentendus.⁽¹⁹⁾

Si tu te determines non pour un mouvement de ton esprit ou de ton coeur mais pour des motifs énoncables et entièrement connus dans l'énoncé, alors je te renie.⁽²⁰⁾

인류의 비극이 모든 사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그로부터 일어나오는 행동의 결핍에 원인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St-Ex.는 PP에서 어린이의 세계를 환기하며 어른이 잃은 어린이의 자연스런 마음이 갖는 유연성, 상상, 직관의 가치를 복권하려 한다.

4.

PP가 우리에게 주는 첫째 매력은 어린이의 환상의 세계 제시다. 무엇보다도 우선 40개 가 넘는 환상적 태생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투의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유도한다. 환상은 어떤 이성의 통제, 어떤 법칙의 구속도 벗어난 자연스런 감정과 의식의 흐름을 따른 연상, 스스로만 보상받는 무보상의 자유행위다. 그러나 환상은 또한 삶의 경화를 방지하는 활력, 창조의 모체다.

사회적 관습이나 어떤 개인적 타성 또는 스스로의 편견에 사로잡혀 굳어진 사람에게는 창의적 상상의 날개를 마음 내키는 대로 편 곳에 있는 환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환상이 어린이에게 특히 풍부한 이유도 어린이는 어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인습이나 잡다한 심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속 삶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도 때때로 환상의 세계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환상이 걸모습 삶의 지나친 집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핍된 속 삶의 자유와 꾸밈없는 욕구를 충족하여 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환상은 흔히 비현실, 신비, 예측 불허의 엉뚱한 착상위에 구축되지만 우리 마음의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즐거운 행위이기도 하다. PP에서 화자의 첫 회상인 처녀립 속의 boa 뱀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우리를 현실과는 먼 신기한 세계로 끌어드린다.

On disait dans le livre: «Les serpents boas avalent leur proie (un fauve) tout entière, sans la macher. Ensuite ils ne peuvent plus bouger et il dorment pendant les six mois de leur digestion.»⁽²¹⁾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PP에서 환상의 세계는 몇가지 기본적 환상의 환기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사회와 멀리 떨어진 장소, 동물의 세계,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은 것들의 제시다.

(19)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71.

(20) *Citadelle*, Pléiade, éd. Gallimard, p.698.

(21)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11.

이 작품에서 화가와 pp가 만나는 장소는 sur la sable à mille milles de toute terre habitée (413)에서다. 이와같이 그들의 만남의 장소가 인간의 세계와 멀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은 누누이 강조되며⁽²²⁾ 전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더우기 pp는 미지의 터키 천문학자가 새로 발견된 신비한 B612라는 작은 별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이 괴팍한 사람들이 사는 별들을 홀로 여행한 후 육신은 지구에 남긴 채 영혼만 자기 별로 돌아간다. 먼 별나라들의 여행 이야기처럼 환상적인 것도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물체인 별은 St-Ex.의 전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휘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다양한 이미지를 띠고 그의 작품의 매력을 더해주며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비록 PP에서와 같이 별들의 세계가 작품의 전체의 배경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독한 야간비행의 체험이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별나라를 바라보며 하는 여행, 상상과 사유는 특별한 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²³⁾ 별에 대한 이러한 남다른 애착없이 PP의 환상적 별나라 배경을 생각할 수 없다. *Vol de nuit*에서 Fabien의 마지막 비행에서 그가 들어간 별들의 세계 묘사에서도 St-Ex.의 새로운 전설의 별나라 착상, PP 창작의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

Sa surprise fut extrême: la clarté était telle qu'elle l'éblouissait. Il dut, quelques secondes, fermer les yeux. Il n'aurait jamais cru que les nuages, la nuit, pussent éblouir. Mais la pleine lune et toutes les constellations les changeaient en vagues rayonnantes....

《Trop beau》, pensait Fabien. Il errait parmi des étoiles accumulées avec la densité d'un trésor, dans un monde ou rien d'autre, absolument rien d'autre que lui, Fabien, et son camarade, n'était vivant. Pareils à ces voleurs des villes fabuleuses, murés dans la chambre aux trésors dont ils ne sauront plus sortir. Parmi des pierreries glacées, ils errent, infiniment riches, mais condamnés.⁽²⁴⁾

PP가 주는 또다른 환상성은 동물과 식물이 특별한 비증을 띠고 출현하는 데 있다.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모습과 여러가지 신비한 특성들의 관찰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까지도 흔히 인간 사회의 억매임들을 벗어나 새로운 환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PP에는 boa 뱀, 양, 코끼리, 여우, 독사, 철새와 같은 동물들과 baobab 나무와 장미 같은 식물이 나타난다. 그러나 boa, 코끼리, baobab는 그들의 거대성이 환상을 불러 일으킬 뿐인 반면 여우와 장미는 의인화되어 조연을 함으로써 PP를 더욱 환상적으로 만든다. 여우는 pp에게

(22) Ibid., pp.413-4, 484: 《Le premier soir je me suis donc endormi sur la sable a mille milles de toute terre habitée. J'étais bien plus isolé qu'un naufrage sur un radeau au milieu de l'Océan... N'oubliez pas que je me trouvais a mille milles de toute région habitée... Aussi absurde que cela me sembla a mille milles de tous les endroits habités et en danger de mort... tu te promenais comme ça, tout seul, a mille milles de toutes les régions habitées?》

(23) Jean Ricardou, *Saint-Exupéry en procès*, éd. Pierre Belfond, Paris, 1997. Ricardou는 Vol de nuit에 나타난 별의 상징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24) *Vol de nuit*, Pléiade, éd. Gallimard, pp.124-5.

인연 맺음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을 설명하며, pp는 여우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미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된다.

—Non, dit le petit prince. Je cherche des amis. Qu'est-ce que signifie «apprivoiser»?

—C'est une chose trop oubliée, dit le renard. Ça signifie «créer des liens...»

—Créer des liens?

—Bien sûr, dit le renard. Tu n'es encore pour moi qu'un petit garçon tout semblable à cent mille petits garçons. Et je n'ai pas besoin de toi. Et tu n'as pas besoin de moi non plus. Je ne suis pour toi qu'un renard semblable à cent mille renards. Mais, si tu m'apprivoises, nous aurons besoin l'un de l'autre. Tu seras pour moi unique au monde. Je serai pour toi unique au monde...

—Je commence à comprendre, dit le petit prince. Il y a une fleur... je crois qu'elle m'a apprivoisé...⁽²⁵⁾

—Les hommes ont oublié cette vérité, dit le renard. Mais tu ne dois pas l'oublier. Tu deviens responsable pour toujours de ce que tu as apprivoisé. Tu es responsable de ta rose...

—Je suis responsable de ma rose... répéta le petit prince, afin de se souvenir.⁽²⁶⁾

Terre des Hommes에도 여우 이야기가 나온다. St-Ex.는 사막에 조난하여 몇 일을 아무 음식도 없이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며 어떤 생명체의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한채 무한히 펼친 모래밭을 헤매다 여우의 발자취를 보고 잠시 갈증을 잊는다.

Si je ne suis guère déçu, par contre, je suis intrigué. De quoi vivent-ils ces animaux, dans le désert? Ce sont sans doute des «fénechs» ou renards des sables, petits carnivores gros comme des lapins et ornés d'énormes oreilles. Je ne résiste pas à mon désir et je suis les traces de l'un d'eux... J'aime ces signes de la vie. Et j'oublie un peu que j'ai soif... Et je lui dit: «Mon petit renard, je suis foutu, mais c'est curieux, cela ne m'a pas empêché de m'intéresser à ton humeur...»⁽²⁷⁾

여기에 묘사된 여우는 PP에 나오는 여우와 같이 의인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여우는 모두 만난 사람을 당황하게 하면서도 호기심을 끌며, 위 인용문에서 여우의 자취가 생명의 존재 표시를 보임으로서 잠시 St-Ex.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듯이 PP에서도 여우는 고독한 pp에게 인연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서 그의 친구에 대한 그리움,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묘사된 여우의 큰 귀(énormes oreilles)와 PP에 나오는 여우의 너무 긴(trop longues) 귀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우화의 동물인 여우의 괴상한 모습, 엉뚱한 장소에서의 뜻밖의 출현과 주인공과의 기이한 인연은 모두 환상적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동물을 등장시킨 환상성 고치는 동물이 의인화 되지는 않은 경우에도 볼 수 있다. PP에

(25)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 470.

(26) *Ibid.*, p. 476.

(27) *Terre des Homme*, Pléiade, éd. Gallimard, pp. 226-7.

는 제목과 함께 날으는 새들에 줄을 매어 그를 붙들고 별들 사이로 떠서 날아가는 pp와 새들의 환상적 그림이 있고 그 밑에 “Je crois qu’il profita, pour son évacion, d’une migration d’oiseau sauvage.”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도 그를 다시 환기한다.⁽²⁸⁾ 또한 양은 화자와 pp의 첫 대화의 대상이 되며, 양의 그림에 대한 pp의 불만족에 못이겨 상자만 그려주고 그 속에 양이 들어 있다고 말하자 그에 만족하는 pp, 양이 가지있는 장미도 먹느냐는 의문 등 양과 관계된 이야기들은 현실적 감각을 떠난 세계에서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다. pp의 육신의 죽음의 원인이 된 그의 노란색 목도리와 비슷하게 생긴 노란 독사도 신비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다.

식물인 장미도 의인화되어 pp의 연인으로 나타나 환상성을 더해준다. 자기 별을 보살피는 정원사 역할도 하는 pp와 장미에 열킨 이야기는 Carlo가 *Courrier Sud*의 Bernis와 Geneviève와의 관계를 비교하며 지적하였듯이⁽²⁹⁾ St-Ex. 작품의 자서전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장미는 주인공이 부득이한 어떤 이유로 이별한 연인의 역할을 한다. 의인화된 장미와 pp와의 대화, 그리고 pp의 장미에 대한 애절한 집착은 PP를 한층 동화적으로 운색한다.

PP에 환상성은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의 존재 또는 어림할 수 없는 다수임을 강조하는 존재들을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태나 숫자를 너무 크고 많게 과장하는 데 나타난다. 이러한 과장은 pp의 몸과 집의 크기만하다는 그의 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것들도 적으므로 더욱 환상적 효과를 갖는다.

PP에 첫 쪽에 등장하는 야수를 통째로 삼키고 그를 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잔다는 boa 뱀은 종류에 따라서는 길이가 6미터나 되는 거대한 뱀이며 pp가 자기 작은 별에 싹이나서 많이 자라면 별을 파열시킬까를 걱정하는 baobab 나무는 키는 20미터를 넘게 자라지 않지만 굵기는 둘레가 25미터나 될 수 있는 거대한 나무다. 화자는 pp에게 지상에 있는 가장 큰 동물로서 대단한 식욕과 신기하게 긴 코를 가진 코끼리 떼도 하나의 baobab 나무 잎을 모두 먹어치울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 나무의 크기를 과장한다. 여기서 boa 뱀과 baobab 나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과 식물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들의 거대성이 환상의 대상이 된다.

Je fis remarquer au petit prince... que, si même il emportait avec lui tout un troupeau d’éléphants, ce troupeau ne viendra à bout d’un seul baobab.⁽³⁰⁾

이러한 환상성 제기는 많음을 표시하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문명 세계인 떠린 별

(28)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36.

(29) Carlo François *L’Esthétique d’Antoine de Saint-Exupéry*, éd. Delachaux & Niestle S.A., édité en Suisse.

(30)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424.

어진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millie milles de*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았다. PP에는 어린이에게 특히 환상적 숫자인 *million, milliard*가 자주 나온다.⁽³¹⁾

St-Ex. 작품에서 거대한 물체와 아주 작은 물체, 무한히 많은 수와 극소수의 대조는 그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의 조종사 생활이 그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특별한 시각적 관찰을 하게 한 데 있다. 비행기에서 그는 무한한 하늘, 광대한 대지, 장엄한 황혼, 끝없는 사막, 거대한 산맥을 보다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멀리 밑에 있는 상자자 같은 작은 집들, 개미 같은 양떼, 작은 정원 같은 농장들 그리고 밤에는 무한히 많은 작은 별들을 보게 된다. 그가 맛본 확대경과 현미경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듯한 데서 오는 환상적 황홀감을 그는 PP에 새로이 부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 외에도 유머가 섞인 믿어지지 않는 토막 이야기들이 환상성을 고취에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너무 작은 pp의 별을 염두에 두고 한 말들인 “코끼리들을 포개서 놓아야만 한다”⁽³²⁾, “baobabs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을 파열시킬 것이다”⁽³³⁾, “의자만 몇 발짝 잡아 당기면 월할 때 언제나 황혼을 볼 수 있다.”⁽³⁴⁾ “화산 분출은 벽난로 불 같으며”⁽³⁵⁾ “활 화산은 아침 식사 덤퓌기에 알맞다”⁽³⁶⁾ 같은 너무나 환상적인 내용의 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그림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pp가 여행하며 방문하는 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도 환상성을 고취하는 말들이 있다. 특히 자기 별에서 홀로 살면서 왕 노릇을 하는 왕과 pp 사이에 하품과 늪은 쥐 재판에 대한 논란⁽³⁷⁾, 감사의 절을 할테니 손뼉을 치라고 말하고 손뼉칠 때마다 모

(31) Ibid., pp. 431, 432, 460, 477: «—Il y a des millions d'années que les fleurs fabriquent des épines. ...une fleur qui n'existe qu' un exemplaire dans les millions et les millions d'étoiles. Ouf! Ça fait donc cinq cent millions six cent vingt-deux mille sept trente et un. On y compte... sept mille géographes, neuf cent mille businessemen, sept millions et demi d'ivrognes, trois cent onze millions de vaniteux.»

(32) Ibid., p. 424: «—Il faudrait les (éléphants) mettre les uns sur les autres...»

(33) Ibid., p. 425: «Et si la planète est trop petite, et si les baobabs sont trop nombreux, ils la font éclater.»

(34) Ibid., p. 429: «Mais, sur ta si petite planète, il te suffisait de tirer ta chaise de quelques pas. Et tu regardais le crépuscule chaque fois que tu le désirais...»

(35) Ibid., p. 436: «Les éruptions volcaniques sont comme des feux de cheminée.»

(36) Ibid., p. 436: «Il possédait deux volcans en activité. Et c'était bien commode pour faire chauffer le petit béjeuner.»

(37) Ibid., pp. 439, 443: pp가 왕 앞에서 하품을 하자 왕은 하품을 겸한다고 명령한다. 그러나 pp가 피로하여 하품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하품을 자기가 본지 오래되어 호기심이 나니 하품을 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명령을 받으니 하품이 안 나온다고 pp가 말하자 왕은 «Hum! Hum! Alors je... je t'ordonne tantôt de bâiller et tantôt de...»라 명령한다.

그리고 pp가 왕을 떠나려하자 자기가 명령을 받을 유일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 두려워진 왕은 그를 법무장관을 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pp가 왕에게 재판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왕은 어디에 늪은 쥐 한마리가 있으니 쥐를 사형선고하되 쥐를 아끼기 위하여 항상 특사를 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자를 벗고 절을 하는 허세꾼⁽³⁸⁾, 자신이 술을 마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 수치심을 잊기 위하여 부득이 술을 계속 마신다는 술 중독자의 괴변⁽³⁹⁾ 등이 환상적이다.

이와같이 PP는 환상적 대상과 함께 어린이의 어투를 구사하면서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장소 제시, 동식물들의 의인화, 다수나 거대성의 강조, 풍자가 섞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의 삽입 등에 의하여 어린이의 환상성을 고취시키며 상상과 직관에서 나온 산물들이 삶에서 갖는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이 작품이 St-Ex.의 여타 작품과 다른 신선한 매력을 주는 것도 내면적 삶의 자연스런 흐름인 환상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5.

어린이의 환상세계 고취 능력과 더불어 PP에 나타난 또 다른 어린이의 특별한 역량은 잠들은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어린 왕자는 화자를 깨워 동심의 새로운 삶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는 자기 별에서 하나의 장미가 피어 깨어나도록 보살피기도 하며 꺼진 화산도 언젠가는 깨어 타오를 것을 기대하고 그를 소제하며 버려진 우물을 깨워 생명수를 길기도 한다. 특히 그가 지구를 떠난 후 어느 한 별에서 웃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화자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는 것과 같으리라는 말은 어린 그로 인하여 생명력이 확산됨을 상기하게 한다.

Le petit prince avait surveillé de très près cette brindille qui ne ressemblait pas qu'aux autres brindilles...

—Ah! je (rose) me réveille à peine... Je vous (pp) demande pardon...⁽⁴⁰⁾

—Mais les volcans éteints peuvent se réveiller, interrompit le petit prince.⁽⁴¹⁾

—Tu entends, dit le petit prince, nous réveillons ce puits et il chante... Cette eau était bien autre chose qu'un aliment... Elle était bonne pour le cœur, comme un cadeau.⁽⁴²⁾

—Ah! petit bonhomme, petit bon homme, j'aime entendre de rire!

—Justement ce sera mon cadeau... ce sera comme pour l'eau...

—Quand tu regardera le ciel, la nuit, puisque j'(pp) habiterai dans l'une d'elles (étoiles), puisque je rirai dans l'une d'elles, alors ce sera pour toi comme si riaient toutes les étoiles. Tu aura, toi, des étoiles qui savent rire.⁽⁴³⁾

이러한 어린이가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힘이 있음은 *Courrier sud*에서 Geneviève가 자기 어린이에게서 느낄 뿐만 아니라 *Terre des Hommes*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38) Ibid., pp.444-5.

(39) Ibid., p.447.

(40) Ibid., p.433.

(41) Ibid., p.458.

(42) Ibid., pp.482-3.

(43) Ibid., p.498.

서 강제로 유괴되어 사막 오지의 비행 초소에 팔려온 늙은 Bark을 붙잡히 여긴 St-Ex.는 동료들과 함께 그를 사서 해방시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인간적 유대가 없던 그는 그의 자유를 오히려 씩씩하게 느낀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어린이의 미소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Et son enfant près d'elle respirait faiblement et c'était le moteur du monde et sa faible respiration animait le monde.⁽⁴⁴⁾

Mais cette liberté lui (Bark) parut amère: elle lui découvrait surtout à quel point il manquait de liens avec le monde.

Alors, comme un enfant passait, Bark lui caressa doucement la joue. L'enfant sourit. Ce n'était pas un fils de maître que l'on flatte. C'était un enfant faible à qui Bark accordait une caresse. Et qui souriait. Et cet enfant réveilla Bark, et Bark se devina un peu plus important sur terre, à cause d'un enfant faible qui lui avait dû de sourire. Il commençait d'entrevoir quelque chose et marchait maintenant à grands pas.⁽⁴⁵⁾

Bark이 한 자유인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떳떳한 인간으로서 복권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한 것은 그를 금전으로 사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보다 한 어린이의 Bark에 대한 동등한 인간적 대우의 표시이다. 어린이는 단순한 웃음으로서 Bark에게 참된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이는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웃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그의 웃음이 생명력을 주는 물과 같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말과⁽⁴⁶⁾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흥미있는 것은 어린이가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갖게 되는 인연(lien)의 창조자적 역할이다. 위에서 pp는 여우에게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며 자신이 장미와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인식한다.⁽⁴⁷⁾ Bark도 또한 한 어린이에게서 생명력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게 결핍되었던 인연을 맺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Il (Bark) était libre, mais infiniment, jusqu'à ne plus se sentir peser sur terre. Il lui manquait ce poids des relations humaines qui entrave la marche, ces larmes, ces adieux, ces reproches, ces joies, tout ce qu'un homme caresse ou déchire chaque fois qu'il ébauche un geste, ces mille liens qui l'attachent aux autres, et le rendent lourd. Mais sur Bark pesaient déjà mille espérances...⁽⁴⁸⁾

실제로 이러한 바람직한 인간 상호 유대의 문제는 St-Ex.의 전 작품을 통하여 어떤 사회

(44) *Courrier sud*, Pléiade, éd. Gallimard, p.27.

(45) *Terre des Hommes*, Pléiade, éd. Gallimard, p. 207.

(46) 주 (43) 참조.

(47) 주 (25) 참조.

(48) *Terre des Hommes*, Pléiade, éd. Gallimard, p. 208.

적 특정 공동체 형성에 가장 근본적 요소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자아 완성의 바탕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49) St-Ex.는 PP에서 유대에 관한 개념의 일부를 어린 왕자, 여우, 장미를 개입시켜 우화적으로 새로이 윤색했을 뿐이다.

6.

어린 왕자는 화자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단지 낡은 껍데기를 버리는 행위일 뿐이며, 그는 자기 별에 가서 다시 살면서 모든 별들이 자기와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50)

Et il(pp) me prit par la main. Mais il se tourmenta encore:

—Tu as eu tort. Tu auras de la peine. J'aurai l'air d'être mort et ce ne sera pas vrai...

Moi je me taisais.

—Tu comprends. C'est trop loin. Je ne peux pas emporter ce corps-là.

C'est trop lourd.

Moi je me taisais.

—Mais ce sera comme une vieille écorce abandonnée. Ce n'est pas triste les vieilles écorces... (51)

이상하게도 St-Ex. 작품에는 어린이의 죽음이 하나의 강박관념과도 같이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그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동생 François의 죽음이(1917) 그에게 준 너무나 큰 충격이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활한 그 자신의 직업을 배경으로한 그의 작중인물들은 극한의 고민이나 죽음 앞에서 자주 어린이의 죽음을 상기한다. (52) 더욱 흥미있는 것은 동생이 사망한지 25년이나 지난 후 스스로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쓴 *Pilote de Guerre*에 동생의 죽음을 생생하게 상기하는 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PP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것을

(49) *Vol de nuit, Terre des Hommes, Pilote de guerre*, Pléiade, éd. Gallimard, pp.111, 252, 314: «Pourtant, dans cette lutte, une silencieuse fraternité liait au fond d'eux-mêmes, Rivière et ses pilotes.» «Liés à nos frères par un but commun et qui se situe en dehors de nous...» «Quand l'homme a besoin, pour se sentir homme, de courir des courses, de chanter en chœur, ou de faire la guerre, ce sont déjà des liens qu'il s'impose afin de se nouer à autrui et au monde.»

(50) 주 (43) 참조.

(51) *Le Petit Prince*, Pléiade, éd. Gallimard, pp.490-1.

(52) *Courrier sud, Vol. de nuit, Terre des Hommes*, Pléiade, éd. Gallimard, pp.8-9, 129, 260-1: «Un enfant court, mais une main l'arrête au front et le renverse... —Mais non, mon vieeux, mais non! on se débrouille. Et Bernis était fier de cet enseignement: son enfance n'avait pas tiré de l'Énéide un seul secret qui le protégeait de la mort.» «La mort de mon enfant, je ne l'ai pas encore comprise.» «Entre l'homme et la femme, l'enfant, tant bien que mal, avita fait son creux, et il dormait... voici Mozart enfant... Les petits princes des légendes n'étaient point différents de lui... Ce qui me tourmente, ce ne sont ni ces creux, ni ces bosses, ni cette laideur. C'est un peu, dans chacun de ces hommes, Mozart assassiné.»

보여주는 계기일 뿐으로 간주된다.

J'ai reçu à l'âge de quinze ans ma première leçon: un frère plus jeune que moi était, depuis quelques jours, considéré comme perdu... Il me dit: «Je voudrais faire mon testament...»... La mort? Non. Il n'est plus de mort quand on la rencontre. Mon frère m'a dit: «N'oublie pas d'écrire tout ça...» Quand le corps se défait, l'essentiel se montre. L'homme n'est qu'un noeud de relation. Les relations comptent seules pour l'homme.

Le corps, vieux cheval, on l'abandonne.⁽⁵³⁾

이러한 한 개체의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개념은 어른의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Pilote de guerre*의 마지막에 작중인물들의 육신은 죽어도 생명력을 다시 불러일으킬 씨앗이 될 것이라고 암시할 뿐만 아니라 *Terre des Hommes*에서도 한 농부의 육신이 죽는다 해도 그의 자식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갖게 되므로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Demain, nous ne dirons rien non plus. Demain, pour les temoins, nous serons des vaincus. Les vaincus doivent se taire. Comme les graines.⁽⁵⁴⁾

On ne meurt qu'à demi dans une lignée paysanne. Chaque existence craque à son tour comme une cosse et livre ses graines.⁽⁵⁵⁾

St-Ex. 작품에서 하나의 육신의 삶은 “L'homme n'est qu'un noeud de relation”과 “On ne meurt qu'à demi dans une lignée paysanne”이 시사하듯이 가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생명 속에 융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개체의 육신은 죽어도 인류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그의 생명력은 계속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새로운 생명체로 소생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육신의 죽음을 생명의 한 탈바꿈으로 느끼게 하는 문학적 윤색은 어린 왕자의 죽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PP의 화자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어린 왕자의 모습을 한 어린이를 만나거던 질문을 해보고 그가 아무런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하면 자기가 만났던 어린왕자임이 틀림없으므로 자기에겐 편지를 보내라고 부탁한다.

7.

*Le Petit Prince*에서 St-Ex.의 어린이 세계 환기는 잃어버린 이상향의 귀의로 볼 수 있다. 그는 서구 문명이 자초한 인류 상호학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희망은 순수한 어린이 내면세계가 갖는 가치의 회복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필

(53) *Pilote de guerre*, Pléiade, éd. Gallimard, p.347.

(54) *Ibid.*, p.385.

(55) *Terre des Hommes*, Pléiade, éd. Gallimard, p.275.

자는 이 작품에 나타난 어린이 세계 복귀의 기원, 어린이에게 있는 어른 불신, 환상성, 생명력 소생 능력, 죽음에 관한 의미 등이 어떻게 윤택되었는가를 St-Ex.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 사례와 비교하며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St-Ex. 전 작품에서 작중인물들의 어린시절 추억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뿐만 아니라 PP의 착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문구를 *Pilote de guerre*에서 볼 수 있었다. 어린이의 어른에 대한 불신은 어른은 편견에 굳어지거나 허세에 사로잡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반면 구김없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만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른은 논리적 모순 속에서 맴돌 뿐이며 신중함적 하지만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St-Ex. 작품의 주인공들이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언어의 유희를 가장 혐오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린이의 생각과 삶의 우월성과 진실성은 어린 왕자의 단순한 삶의 제시와 그가 여행하며 만난 어른들에 대한 회화에 강조되어 있다.

어린이의 환상성은 수많은 환상적 태생과 함께 어린이의 특수한 어투를 구사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먼 장소의 여행, 동물과 식물의 의인화, 다수와 거대성의 강조, 풍자가 섞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의 삽입에 의하여 묘사되었다.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물의 일부는 pp 이런 작품과 관계가 있으나 그들은 새로이 윤색되었다.

환상은 아무런 구속이 없는 감정과 의식의 자연스런 흐름을 따른 연상과 직관의 산물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내면적 삶의 한 형태다. PP에서 어린이 환상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 고치는 환상 없이 마음이 경화되고, 각자가 비인간화되어 가는 인류 문명, 전쟁으로 치달는 서구 사회에 결핍한 참된 삶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고유 자질로서 또한 돋보이는 것은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어린이의 특별한 능력이다. 어린 왕자는 화자를 깨워 동심의 삶의 세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미, 버려진 우물, 별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는 *Terre des Hommes*에서 한 어린이가 노예였던 Bark에게 웃음을 보냄으로서 그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린이 자질은 사회적 가치와 편견을 초월한 순수하고 구김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한 사랑에 의한 인연의 참된 가치가 삶을 얼마나 뜻있게 하는가를 강조하였다.

어린 왕자는 자기의 육신의 죽음은 낡은 껍질을 버리는 행위이고 자신은 어느 별에 가서 다시 살게 된다고 말한다. 어린이의 죽음을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하나의 탈바꿈 행위와 같이 윤택한 경우는 *Pilote de guerre*에서도 볼 수 있다. 개체의 죽음을 마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Le Petit Prince 전체에 부각된 어린이의 자연스런 의식의 흐름에서 나온 상상과 직관에 대한 새로운 가치회복은 주지주의, 실증주의, 유물론을 비하시키면서 유심론에 접근하고 있다.

Bibliographie:

- Oeuvres d'Antoine de Saint-Exupéry*, préface de Roger Caillois, Bibl. de la Pléiade, Paris, éd. Gallimard, 1953. (Ce volume contient: *Courrier sud*, *Vol de nuit*, *Terre des Hommes*, *Pilote de guerre*, *Lettre à un otage*, *Le Petit Prince et Citadelle*)
- Saint-Exupéry, *Lettres à sa mère*, ed. Gallimard, 1955.
- Jean Ricardou, *Saint-Exupéry en procès*, éd. Pierre Belfond, Paris, 1977.
- Carlo François, *L'Esthétique d'Antoine de Saint-Exupéry*, éd. Delachaux & Niestle S.A., édité en Suisse.

Résumé:

L'évocation de l'univers de l'enfance dans le *Petit Prince* apparaît comme un retour de Saint-Exupéry à son paradis perdu. En revalorisant les propriétés de l'enfant, il veut condamner la contradiction de la civilisation occidentale et surmonter la catastrophe de la guerre dans laquelle on s'entretue sans aucune raison évidente. J'ai voulu donc me proposer d'estimer particulièrement la nostalgie des héros exupériens pour le retour à l'enfance, la défiance de l'enfant aux grandes personnes, la valeur de la fantaisie infantine, le don propre de l'enfant pour réveiller la vie et le sens de la mort de l'enfant.

Les héros exupériens se souviennent souvent de l'enfance dans leur solitude extrême, et surtout devant le danger de mort. Cela est sans doute qu'il retrouve certaine vérité ultime de la vie dans l'univers de l'enfant. D'ailleurs, *Pilote de guerre* où notre auteur décrivait le courage et la mort des pilotes comprend curieusement des phrases qui se rapportent aux souvenirs de son enfance et ébauchent en partie le *Petit Prince*.

La défiance de l'enfant aux grandes personnes découle de la pensée qu'elles ne comprennent rien toute seules et tournent perpétuellement en rond avec leurs préjugés. Cela se rapporte partiellement à la haine des héros exupériens contre les paroles ou le raisonnement qui ne portent pas de poids de vie. Notre auteur a voulu donc mettre en valeur la vérité de l'enfant par la présentation de la vie simple du petit prince dans ses petits soucis d'une part, et d'autre part par la satire amusante contre la vie des grandes personnes pleines de vanités et sclérosées de préjugés.

L'évocation de la fantaisie s'est faite de la présentation des endroits lointains et des voyages interplanétaires, de la personnification des animaux et des fleurs, de l'exagération

de la grandeur ou du nombre des choses et de l'introduction des épisodes incroyables et satiriques.

La fantaisie se rapporte à la vie intérieure qui jouit de l'association libre des idées et des images selon son humeur. Vivre à sa fantaisie est dans une certaine mesure l'accomplissement fidèle de la volonté et de la vérité de la vie intérieure. L'évocation de la fantaisie de l'enfant dans le Petit Prince est à revaloriser la liberté de la vie intérieure que les grandes personnes ont trop négligée dans leurs vaines ambitions sociales, dans leurs conflits ouverts et dans leurs intransigences.

L'une des propriétés de l'enfant qui retient encore notre attention, c'est le don de réveiller la vie. Le petit prince réveille le narrateur pour l'amener dans l'empire de l'enfance. Il réveille aussi une rose, un puits abandonné et des étoiles pour qu'ils prennent une nouvelle vie. Son don de réveiller la vie rejoint celui d'un enfant qui a réveillé la vie de Bark dans Terre des Hommes. Bark, esclave libéré, ne ressent vraiment sa liberté et sa vie nouvelle qu'après qu'un enfant inconnu lui a souri franchement.

Ce don de l'enfant est fondé sur l'amour pur et simple de l'enfant pour l'homme, amour sans distinction de races, de richesse et de hiérarchie sociale. Ce qui réveille ici la vie, c'est le mouvement du cœur de l'enfant vers les êtres humains que les grandes personnes ne conservent plus.

Pour finir, notre attention se porte vers le sens de la mort de l'enfant. Le petit prince dit avant de quitter la terre que son corps mort sera comme une vieille écorce abandonnée et qu'il habitera dans l'une des étoiles. La mort de l'enfant est dépeinte plusieurs fois chez notre auteur comme un acte de métamorphose ou comme une métempsycose. La vie de la lignée et la vie spirituelle l'emportent sur la mort d'un corps.

La revalorisation des propriétés de l'enfant dans le Petit Prince défend à notre insu l'intuitionnisme et le spiritualisme contre le rationalisme, le positivisme et le matérialisme.